

# 夜 啼

孟 華 變\*

## 上夜半啼

東醫寶鑑에는 熱則心燥而啼하고 面赤, 小便赤, 口中이 熱하여 腹緩하고 或은 有汗, 仰身而啼 하며 또 말하기를 上半夜에 仰身하면서 有汗 하고 啼하며 面赤, 身熱한 것은 必히 痰熱이니 到曉에 方息한다 하였으며 導赤散加黃芩하여 煎服하거나 通心飲도 亦可하다 하였다. 小兒醫方에는 上半夜啼는 上半夜에 仰身하면서 有汗 하며 啼하고 面赤, 心燥, 小便赤澁, 口腹이 皆熱한다 하였고 下記方藥을 用한다 하였다.

①導赤散; 小腸熱, 小便不利를 治한다.

生地黃, 木通, 甘草 各一錢. 青竹葉 七分入 하여 煎服한다. 여기에 黃芩 一錢을 加하여 煎服한다.

②小兒醫方 導赤散

生地黃, 木通 各一錢. 黃芩, 澤瀉 各五分. 山梔子, 甘草 各三分 生薑 一片, 또는 膽星抱龍丸 一丸을 溫水에 調服한다 하였다.

③通心飲; 旋螺風으로 赤腫而痛함을 治한다. 清心火하고 通小便하며 退潮熱한다. 半啼에 用하여도 亦可라고 하였다. 連翹, 木通, 瞿麥, 梔子仁, 黃芩, 甘草 各四分, 以上 藥을 坐作一貼하고 燈心, 麥門冬을 入하며 同煎服한다. 口臍中이 腫하여 突出함이 似旋螺한 故로 旋螺風이라한 것이다.

④燈心散; 小兒가 心燥하여 夜啼함을 治한다. 燈心花 三~四顆를 研細하여 燈心煎湯으로서 調하여 塗口中하고 乳汁으로서 送下하되 日 三次 한다.

一方에는 燈花·七枚, 鵬砂一字 朱砂少許를 研細하여 蜜로 調하여 唇上에 扶하면 立止한다. 小兒醫方에는 燈花 三~四枚를 燈心 少許煎水에 調勻하여 乳上에 바르고 兒로 하여금 吮之케한다고 하였다.

⑤黃連飲; 心經에 有熱하여 夜啼함을 治한다.

人蔘 二錢 川黃連 一錢半 炙甘草 五分 青竹葉 十片 生薑 一片 以上 藥을 剉하며 水煎 取汁하여 灌中한다. 小兒醫方에는 川黃連, 甘草 各三分. 竹葉三片 以上 藥을 煎服한다 하였다 (牛黃少許를 調服하여도 亦可하다).

⑥蟬花散; 小兒夜啼로서 狀若鬼祟함을 治한다. 蟬殼下半截를 爲末하여 初生兒는 抄一字하여 薄荷湯에 다 入酒少許하여 調下하면 卽止한다. 或은 以上の 蟬殼上半截爲末을 以上の 湯과 같이 作湯하여 調用하면 啼復如初한다. 小兒醫方에는 蟬殼去足 三分을 水煎하여 鏡面朱砂 一分을 調服한다.

## 下夜半啼

東醫寶鑑에는 말하되 寒則 腹痛而啼 하면서 面靑하고 口有冷氣하며 手足이 冷하고 腹亦冷하며 曲腰而啼한다 하고 또 말하되 下半夜啼者는 大概 夜則陰盛하고 寒則作痛함으로 이러한 所以로 夜半의 後에 啼하는 것이라 하고 六神散, 益黃散이 宜하다 하였다. 小兒醫方에는 말하되 下夜半啼는 卽 밤중에만 우는 것으로서 必히 曲腰窺視, 手足搐掣 等症을 묻하나니 이것은 胎寒이나 衣服의 過涼으로 臟腑에 寒氣가 透入한 까닭에 盤腸內釣, 肚腹脹滿을

許하게 되는 것으로 大概 夜即 陰盛하고 寒則 作痛이 되고 甚하면 陰盛發躁가 됨으로 夜啼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①六神散; 腹이 冷痛하여 夜啼함을 治한다.

白茯苓, 白扁豆 各二錢 人蔘, 白朮, 山藥 各一錢 甘草炙七分 以上 藥을 籠末하여 每服一錢 薑三, 棗二枚를 入하여 水煎服한다.

②益黃散; 慢驚風을 治한다.

黃芪 三錢 人蔘, 陳皮 各一錢. 白芍藥 七分, 生甘草 炙甘草 各五分, 白茯苓 四分, 黃連 三分. 以上 藥을 籠末하여 水煎하여 時時服한다. 一名은 黃芪益黃散이라 하였다.

大抵 驚兒는 瀉青色하나 大禁 涼驚丸한다. 大概 風木이 旺하면 必히 剋脾土하나니 當然히 生實其土한 後에 瀉其木하는 것이다. 마땅히 心經中의 甘溫함으로서 金을 補하여 주며 酸함으로서 脾土中의 金旺함을 瀉하게 하여 준다. 그리하여 火가 衰하여지면 風木은 自然히 虛하여 질 것이다.

③小兒醫方에는

白芍藥炒 一錢 桂心 五分 丁香 二分을 水煎服한다. 乳香을 細末하여 一分을 調服하여도 亦是 可하다.

④加味芍藥湯; 下夜半啼를 治한다(筆者加味方)

白芍藥炒 一錢 炙甘草, 桂心 各三分, 木果 唐木香 各三分 丁香 二分 生薑 一片(乳香細末 調服도 亦可)

月內夜啼驚搐者

月內에 夜啼하며 驚搐이 오는 것은 胎中에 受驚한 所治이다. 이에 是 猪乳膏, 鎮驚散이 宜하다 하고 有痰者는 抱龍丸이 宜하다 하였다.

初生하여 달이 차지 않았는데 多啼하는 것은 赤兆이니 胎熱, 胎毒, 胎驚이 모두 啼함으로서 疏散이 되고 또한 奇疾도 없어진다고 하였다.

客忤라함은 神氣가 軟弱한 몸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면 夜啼하며 或은 人氣에 感觸이 되면 啼하고 낮에는 啼하고 夜에는 驚하는 것을 말하며, 夜에도 黃昏前後가 尤甚한 것은 客忤中惡이니 錢氏安神丸을 主로 하고 客忤法에 依하여 治之하라 하였다.

口瘡·重舌이 된것은 乳를 빨려고 하여도 口에 乳上에 닿기만 하면 啼하고 身과 額이 모두 微熱이 생기니 燥火로 口를 비추어 보았을 때 萬若에 瘡이 아니면 舌根에 舌이 重生함으로 보고 口瘡·重舌類로 治之하라 하였다.

按하건데 小兒醫方은 東醫寶鑑을 充分히 보고 著述한 것으로 보이는데 寶鑑中에서 簡單한 處方을 拔萃하여 놓은 것 같으며 될 수 있으면 人蔘을 안쓰거나 될 수 있으면 量을 적게 넣은것 같으므로 여기에 留意할 것이고 小兒病을 治療할 때에는 人蔘, 附子 같은 藥은 小兒에게는 될 수 있으면 慎用할 것이다. 夜啼뿐 아니라 腹痛, 泄瀉 또는 다른 疾病도 小兒에게는 더운 藥은 될 수 있는대로 深思熟考하여 덜 쓰도록 留意하여야 한다.